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 여강(驪江)의 인식*

최재남**

차 례

- | | |
|--------------------------|--|
| I. 서언 | 1. 어부 체험 공간으로서의 여강: 이 집, 김구용의 경우 |
| II. <어부가>의 전승과 어부 세계의 지향 | 2. 소망 공간으로서의 여강과 어부의 삶에 대한 그리움: 이색의 경우 |
| III. 어부 지향 공간의 구성 요소 | V. 소결 |
| IV.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의 여강(驪江) | |

I. 서언

강호에서 어부(漁父)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하는 전통은 고려중기 이후 시가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¹⁾ 그 즐거움의 이면에 정사(政事)나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푸른 도롱이와 대삿갓 차림으로 저녁 무렵 가랑비가 내리는 낚시터에서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즐거움의 한 방편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삶

* 본 연구는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성대논문집』 9집(1964), 5~28쪽.

에 대하여 가어옹(假漁翁)²⁾이니 강호의 즐거움[江湖之樂]이니 하여 고평하면서 자연미(自然美)³⁾라는 중요한 미의식으로까지 평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강호가도(江湖歌道)라는 이론적 범주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야를 넓혀서 어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서구에서 목부(牧夫)으로 살아가는 삶과 견주어서 현대적 변이양상을 이해하거나⁴⁾,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그 의미를 살핀 연구⁵⁾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려시대 어부의 즐거움을 말하는 노래는 중국 사인(詞人)들이 어부(漁父)에 대해 읊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거나,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읊은 내용을 집구(集句)하여 재정리하면서 토를 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연구의 방향도 조선시대의 <어부가>와 어부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고려시대의 그것을 점검하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성을 중심으로 조정의 현실을 한 축으로 설정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강호를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정치와 자연이라는 대립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이러한 대립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실제 어부의 세계에 대하여 일반적 강호(江湖)이거나 미지의 상상의 세계로 상징하여 낭만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

2) 최진원, 『가어옹』, 『성대논문집』 5집(1960), 『국문학과 자연』(성대출판부, 1977)에 요약 수록

3) 조윤제, 『조선시기가사강』(동광당서점, 1937), 『국문학사』(동방문화사, 1949), 130~142쪽.

4) 김병국, 『한국전원문학의 전통과 그 현대적 변이양상』, 『한국문화』 7(1986),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출판부, 1995)에 『강호가도와 전원문학』으로 수록, 김홍규, 『강호시가와 서구 목가시의 유형론적 비교』, 『민족문화연구』 43호(2004), 1~44쪽.

5) 이형대,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고려대 박사논문, 1998),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소명출판, 2002)에 수록

지하였다. 그런데 고려 후기인 14세기 후반에 어부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관념적인 지향에 머물거나 중국 사인들의 시(詩)나 사(詞)를 집구하면서 자족했던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 공간인 여강(驪江)을 중심으로 어부의 삶을 추구하고자 한 일련의 경향을 확인하면, 어부 지향의 세계와 그 공간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새로운 해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부가>는 집구의 성격을 지니지만 어부 지향의 공간은 구체적 현실성을 확보하면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4세기 후반 특정한 시기에 어부의 세계를 지향하는 구체적 공간으로 설정한 여강(驪江)과 그 주변이 지닌 성격과 의미를 이색(李穡, 1328~1396)과 김구용(金九容, 1338~1384) 등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면서, <어부가>의 세계와 어부 지향의 세계를 변별하고자 한다. 어부 지향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부가>의 양상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어부가>의 전승과 어부 세계의 지향

<어부가>의 전승과 어부 세계의 지향은 비슷한 듯하지만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어부가>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면서 즐기는 것과 어부의 삶을 지향하면서 지내는 것을 변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어부가>의 전승은 중국 사인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집구의 형태로 정리하면서 『악장가사』에 수록된 <어부가>를 산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 실제 기생이 노래로 부르는 과정에 창(唱)의 기능을 지

6) <어부가>에 대한 연구의 기본 방향이 이런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이재수, 『윤고산연구』(학우사, 1958), 최동원, 「어부사의 사적 전개와 그 영향」, 『어문교육논총』 8집(1984), 윤영옥, 「어부사연구」, 『민족문화논총』 2·3집(1986), 35~72쪽, 송정숙, 「어부가계 시가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0), 박완식, 「어부사 연구」(우석대

닌 작품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황(李滉, 1501~1570)이 어린 시절에 안동의 기생이 <어부가>를 노래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으니 16세기 초반까지 기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뒤에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이를 산정하여 장가 계열의 <어부가> 9장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다시 <어부사시사>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인식 또는 어부의 세계를 지향하는 방향은 고려중기 이후 한시를 통하여 관념적으로 이어지다가 어부의 삶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구체적 현실 공간을 확보하면서 <어부가>의 전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실제 <어부가>를 향유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부가>가 빠진 상황에서도 어부의 삶을 모델로 설정하고 강과 전지와 승경이 어우러진 곳에서 도롱이와 대삿갓 차림으로 저녁 무렵에 가랑비가 내리는 뉘시터에서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가까운 절에서 스님을 만나기도 하고, 달빛에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 삶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구체적 현실 공간으로 고려 후기의 여강(驪江)과 그 주변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강(驪江)은 경기도 여흥(驪興) 지역을 흐르는 한강을 가리키던 말로 현재 남한강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경(開京)에서는 여강을 원지(遠地)⁷⁾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유배지⁸⁾이기도 했지만, 강 주변에는 빼어난 승지가 있고 아울러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공경(公卿)의 별장이 마련되어 있기도 한 곳이었다.

이색이 광주목에 있던 천녕을 읊은 <천녕의 노래[川寧吟]>⁹⁾에서 여

박사논문, 1996) 등 참조

7) 『고려사』 권115, 『열전』 28, <이색전>, “여흥은 원지니 맞아 근지에 안치하면 임금을 내쳤다는 이름을 면할 수 있으리라.”

8) 任君輔, 閔壽生, 金九容, 禍王 등이 여흥으로 유배되었음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의 위치와 그 주변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어부 지향의 구체적 공간으로 지목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시내의 근원이 죽령(竹嶺)에서 내려와서
 단양의 산과 예성의 언덕, 여흥의 별관을 지나네.
 달리는 물줄기가 수백여 리이고
 배는 밤낮 없이 송경(松京)으로 들어가네.
 천녕(川寧)이라는 한 고을은 풍광이 좋은데
 동쪽 지경은 양근(楊根)이고 서쪽은 이천(利川)이네.
 공경(公卿)들의 별서(別墅)가 멀리 서로 바라보이는데
 봄바람과 가을달에는 아름다운 잔치를 연다네.
 川之源兮竹嶺下 丹山藥坡驪興野
 奔流數百有餘里 舟入松京無晝夜
 川寧一邑好風烟 東岸楊根西利川
 公卿別墅遙相望 春風秋月開華筵

여강을 중심으로 한 여흥(驪興), 천녕(川寧), 이천(利川) 등이 그 권역에 해당하며, 죽령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신록사와 용문사를 비롯한 사찰, 침류정과 청심루 등을 비롯한 누정, 그리고 공경들의 별장¹⁰⁾이 마련되어 있던 곳으로 확인된다.

그리하여 여강을 중심으로 한 이 권역으로 돌아가 눈 속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어부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실제 이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어부 세계의 지향으로 파악하고 여강과 그 주변을 주목하는 것이다. 실제 이색도 천녕으로 돌아가서 별장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고향 한산(韓山)과 견주

9) 『목은시고』 권16, <川寧吟>, 여운필·성범중·최재남 공역, 『역주 목은시고』 6 (월인, 2003), 작품 번호 06-16-002(06은 역주 책, 16은 원전 수록 권수, 002는 작품 번호이다. 이색의 시는 이하 06-16-00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10) 『목은시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柳珣의 이천전사, 廉興邦의 천녕별서 등이다.

어 새로 마련할 천녕의 별장에 대한 기대를 우왕 4년(1378, 51세)에 지은 다음의 <시골집[田廬]>에서 읽을 수 있다.

마읍(馬邑)의 시골집에 작은 창이 고요한데
 가까운 수루에서 고각(鼓角) 소리가 들려오네.
 배틀 위에 밝혀진 등불은 밤일하기에 알맞고
 침상 머리에서 익은 술은 추수할 때 좋네.
 남쪽 마을의 늙은이와 함께 낚시줄을 드리우고
 북쪽 절의 스님을 불러 촛불을 잡고 노네.
 다시 천녕(川寧)으로 가서 별장(別莊)을 열리니
 곳곳의 강산은 돌아가 쉴 만하다네
 田廬馬邑小□幽 鼓角聲傳近戍樓
 機上燈明宜夜作 床頭酒熟好秋收
 南村叟共垂絲釣 北寺僧邀秉燭游
 更向川寧開別墅 江山到處可歸休¹¹⁾

그리고 여강에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그곳에 하사받은 전지가 있어서 귀거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목은은 51세이던 우왕 4년(1378)에 여강 가에 전지를 하사 받은 것이다.

노쇠하고 머리가 센 신(臣)이 아직 빈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칙령(勅令)으로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밭을 하사하셨네.
 옛날부터 군신 사이에는 큰 의리가 있었는데
 이제 처와 자식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펴겠네.
 물굽이에 배를 타고 밝은 달을 초대하고
 산자락에 집을 짓고 푸른 산을 깎아내리.
 다만 부족한 것은 남은 생애에 사직(辭職)을 청하는 일인데
 은혜에 감격하여 두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네.
 憐臣衰白尙貧寒 勅賜土田山水間
 自古君臣存大義 如今妻子免愁顏

11) 『역주 목은시고』 5, 05-12-078, <田廬>

乘舟水曲招明月 結屋雲根蹠碧山
 只欠殘生乞骸骨 感恩雙淚不禁漣¹²⁾

전지가 있는 여강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누리겠다는 기대는 “누워서 앓으면서 나라의 은혜를 입음에 몹시 놀라거니와, 여강(驪江)의 양쪽 언덕에는 하사받은 전야가 있다네.(臥病深驚荷國恩 驪江兩岸賜田原)”¹³⁾를 비롯한 여러 편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구용은 우왕 1년(1375)에 죽주(竹州)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여흥으로 양이되었는데, 당시 천녕의 도미사에 은거하고 있던 이집(李集, 1327~1387)에게 보낸 절구 5수에서 여강에서의 삶을 어부의 삶 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의 여강은 이 시기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를 들어본다.

달빛과 강물 소리에 더운 기운이 가시는데
 늙은 고기가 때때로 이끼 낀 물 가로 가까이 다가오네.
 낚싯줄 걷고 노를 거두어도 아무 일 없으니
 가벼운 배 편히 내버려두고 느긋하게 돌아가네.
 月色江聲暑氣微 老魚時復近苔磯
 收絲卷棹人無事 穩放輕舸緩緩歸¹⁴⁾

그런데 이러한 여강이 어부 지향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강을 끼고 있는 여강과 그 주변이 지닌 장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돈(?~1371)이 축출되고 공민왕(1330~1374)이 승하한 뒤에 이인임(李仁任, ?~1388)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비판 세력인 김구용·이승인(李崇

12) 『역주 목은시고』 4, 04-10-038, <蒙賜田有感>

13) 『역주 목은시고』 10, 10-27-072, <賜田收租回一首>

14) 『척약재학음집』 권하, 성범중, 『척약재 김구용의 문학세계』(울산대출판부, 1997), 작품번호 237, <驪江五絶>

仁) 등을 유배시키게 되었는데,¹⁵⁾ 이런 과정에 유배지인 여강이 불만스러운 개경의 정치 현실을 벗어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돈 때문에 영천(永川)에서 숨어서 지내던 이집이 천녕현에 은거지를 마련한 것이라든가, 이색이 우왕 때에 여강 주변에 전지를 하사 받은 것 등이 이들의 여강에서의 어부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기대하게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시기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여강의 하류가 개경으로 이어지고 통로로 볼 수도 있지만 상류로 올라가면 죽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뒷날 죽령을 넘나들며 한양과 예안을 오고간 이현보의 분강(汾江)과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를 타고 여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귀거래사>를 읊었던 것을 환기하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이색도 죽령을 말하면서 그러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봄바람이 조용히 움직여 새벽 읍기가 드리웠는데
 백발의 쇠약한 늙은이는 앉아서 시를 읊네.
 강 가의 푸른 물결은 죽령(竹嶺)에 이어지는데
 언제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 남쪽 물가에서 바라보라?
 春風澹蕩曉陰垂 白髮衰翁坐詠詩
 江上綠波連竹嶺 沂流何日望南陲¹⁶⁾

여강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 죽령을 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은의 태도는 죽령을 넘어서 외가가 있는 영해를 상징했을 수 있지만 어부 지향의 공간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공간인 여강을 주목할 때 우리는 어부 지향을 관념적인 것으

15) 『고려사』 권129, 「열전」 39, <이인임전>, 『고려사』 권104, 「열전」 17, <김구용전> 등 참조

16) 『역주 목은시고』 5, 05-14-103, <驪江>

로 설명하는 단계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마음 속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강과 전지와 승경이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서 직접 어부의 삶을 체험하거나 그리워하는 방향으로 여강에서 어부의 세계를 실행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Ⅲ. 어부 지향 공간의 구성 요소

어부(漁父)로 살아가는 삶 즉 어부의 세계는 어느 정도 관습화되어 있다. 실제 구체적인 현실 공간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어부와 어부의 삶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의 시인들이 읊은 어부의 형상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당나라의 장지화(張志和)가 호주(湖州)로 안진경(顏真卿)을 찾아가서 지은 <어가자(漁歌子)>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쪽 변세의 산 끝에서 흰 해오라기가 날고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는 쏘가리가 살찌네.
 푸른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로
 비낀 바람 가랑비에 돌아갈 줄 모르네.
 西塞山邊白鷺飛 桃花流水鱖魚肥
 青箬笠 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

위의 사(詞)에는 해오라기,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 쏘가리, 파란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 비껴 부는 바람, 가랑비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소재가 어부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장지화의 사에 등장하는 이런 요소를 포함하여 파란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靑箬笠 綠蓑衣], 낚싯대와 낚시질, 낚시터, 비껴 부는 바람과 가

랑비[斜風細雨], 쪽배 또는 조각배[扁舟] 등을 어부로 살아가는 삶의 구성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파란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靑簍笠 綠蓑衣]는 어부가 머리에 쓰고 어 깨나 허리에 걸치는 것으로 어부의 검소한 옷차림을 형상화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삿갓[簍笠], 도롱이[蓑衣], 도롱이와 삿갓[簍笠] 등과 같이 축약이 되거나 푸른 도롱이[綠蓑]와 같이 한 가지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부의 거칠고 소박한 차림새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우선 이색의 시에서 몇 예를 들어 본다.

양쪽 기슭 구름 낀 산에 푸른 기운이 쌓였는데
 낚시줄 하나로 바람 속에서 이끼 낀 물 가에 앉아 있네.
 저녁녘에 석양길에 이슬비가 내릴 때에
 청약립과 녹사의로 홀로 돌아온 일이 기억나네.
 兩岸雲山矗翠微 一絲風裡坐苔磯
 晚來小雨斜陽路 簍笠蓑衣記獨歸¹⁷⁾

달빛이 희미한 강 위의 하늘에는 봉화가 없거늘
 언제나 도롱이와 삿갓 차림으로 늙은 낚시꾼을 짝하랴?
 江天烟月無烽火 蓑笠何時伴釣翁¹⁸⁾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낚시대와 낚시질이다. 푸른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의 어부의 차림새로 낚시대와 낚시질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된다. 하나의 낚시줄[一竿], 드리운 낚시대[垂釣] 등이 물고기를 낚는 도구로서 낚시대를 형상화한 것인데 그 배경은 달밤이거나 강 위의 배이다.

17) 『역주 목은시교』 5, 05-12-002, <又用前韻自詠>

18) 『역주 목은시교』 10, 10-27-082, <憶家山>

어느 날이나 사직하여 동해로 가서
달빛 속에 이끼 낀 물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울까?
何日乞身東海去 月中垂釣坐苔磯¹⁹⁾

머리를 돌리니 천지에는 티끌이 어둑한데
고기를 낚는 돈대에서는 달빛이 낚싯대 하나를 비추리.
回首乾坤塵漠漠 一竿明月釣魚臺²⁰⁾

이와 함께 낚시를 하는 장소인 낚시터는 강가에 있으며 돌에 이끼가 끼어 있고[苔磯], 주변에는 안개[연기]가 자욱하게 두르고 있거나 달빛이 비치고 있어서 신비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들에는 햇빛이 나무꾼의 길에 빛나고
강에는 연기가 낚시터에 어둑하네.
野日明樵徑 江烟暗釣磯²¹⁾

하늘 끝 강에는 나의 낚시터가 나지막하니
자욱한 푸른 안개기운이 나의 옷을 적시리.
江天漠漠低我磯 空翠霏霏濕我衣²²⁾

탈속한 어부의 차림새로 달밤에 으스스한 안개가 낀 낚시터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바람이 비껴 불고 가랑비가 내리는[斜風細雨] 때인 경우가 많다.

싱그러운 풀에 낀 맑은 연기가 목동의 피리에 이어지고
비껴 부는 바람에 가랑비는 고기잡이배에 가득하네.
芳草淡烟連牧笛 斜風細雨滿漁舟²³⁾

19) 『역주 목은시고』 5, 05-12-106, <得寧海金左尹書>

20) 『역주 목은시고』 7, 07-19-101, <連日有微雨>

21) 『역주 목은시고』 6, 06-15-060, <自詠二首>

22) 『역주 목은시고』 10, 10-29-049, <悶雨歌>

가랑비와 비껴 부는 바람이 푸른 도롱이에 가득한데
 꿈 속에는 늘 흰 갈매기 노는 물결이 있네.
 細雨斜風滿綠簑 夢中長在白鷗波²⁴⁾

여강(驪江)의 봄물이 이끼처럼 푸른데
 물 가의 들쭉날쭉한 띠집은 열려 있네.
 언제나 사직하여 시골 늙은이를 따르면서
 가랑비 속에 비긴 바람을 맞으면서 배를 저어서 돌아올까?
 驪江春水碧如苔 茅屋參差傍岸開
 何日乞身隨野老 斜風細雨刺船回²⁵⁾

다음으로 어부가 강에서 이동하는 수단인 쪽배 또는 조각배[扁舟]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쪽배에서 낚싯줄을 드리우기도 하고 벼를 찾아 떠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로운 배[孤舟]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강 가의 달이 그림 같은데
 쪽배에서 낚싯줄을 드리우네.
 은쟁반에는 달빛이 떨어지고
 형체와 그림자는 한창 침착하고 느긋하네.
 江上月如畫 扁舟垂釣絲
 銀盤墮空明 形影方逶迤²⁶⁾

조각배로 곧장 여강(驪江)을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부들뚝대에 바람이 가득하고 물은 넉넉하리.
 扁舟直溯驪江去 風滿蒲帆水面肌²⁷⁾

23) 『역주 목은시고』 3, 03-07-062, <憶甘露寺>
 24) 『역주 목은시고』 4, 04-09-011, <憶甘露寺>
 25) 『역주 목은시고』 6, 06-15-064, <小雨>
 26) 『역주 목은시고』 4, 04-10-084, <江上>
 27) 『역주 목은시고』 6, 06-15-097, <晚雨>

언제나 여흥(驪興)의 강 가로 가서
 외배에 도롱이와 샷갓을 쓰고 편안하게 내 생애를 마칠까?
 何日驪興江上去 孤舟簑笠歿吾寧²⁸⁾

어부 지향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꽃이나 술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 가에서 가까운 절이나 스님도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이색이 김구용의 육우당에 대해 지은 기문에서,

눈은 외로운 배를 타고서 도롱이를 쓰고 있을 때에 더욱 멋이 있을 것ियो, 달은 높은 다락 위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일 적에 더욱 흥치가 날 것이며, 바람은 뉘싯줄을 드리우고 있을 적에 그 맑음을 한층 더 느끼게 될 것ियो, 꽃은 책상머리 앞에서 바라볼 적에 그 그윽함을 한결 더 실감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또 사시의 승경이 한데 어우러져 각자 분위기를 한껏 돋으면서 강과 산 사이에 가로세로로 걸쳐 있게 될 것이다.²⁹⁾

라고 하여 어부(漁父)라는 호에 부합하게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눈·달·바람·꽃·강·산 등을 벗으로 삼은 것을 지적한 것과 대응하는 것으로, 어부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색의 <여강의 절구 4수>³⁰⁾와 김구용의 <여강의 절구 5수>³¹⁾와 같은 작품이 어부의 세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계절에 따라 잘 어우러지게 한 것이거나 현장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역주 목은시고』 5, 05-14-039, <雪>

29) 이색, 「육우당기」, 『목은문고』 권3

30) 『역주 목은시고』 4, 04-09-025, <驪江四絶>

31) 『척약재학음집』 권하, 성범중, 『척약재 김구용의 문학세계』(울산대출판부, 1997), 작품번호 237, <驪江五絶>

IV.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의 여강(驪江)

여강 지역은 14세기 후반 염흥방(廉興邦, ?~1388)이 유배생활을 하는 도중에 천녕현에 침류정³²⁾을 짓고 노닐었고, 김구용(金九容)³³⁾이 외가인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옥우당을 마련하고, 이집(李集, 1327~1387)³⁴⁾이 천녕 지역에 거처를 정하고 만년을 보냈으며, 여강 가에 전지를 하사받은 이색이 귀거래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서 어부 지향 공간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모두 1370년대 중반 이후 1380년대 초반에 걸친 특정한 시기이다. 실제 이집의 『둔촌잡영』, 김구용의 『척약재학음집』, 이색의 『목은시고』를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어부의 세계를 지향하는 긴밀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세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시편의 핵심적 내용이 모두 어부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 이들 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데, 여강 가에서 함께 지내면서 어부의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바람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강가의 다락 높은 곳이 그대가 사는 곳인데
언덕 너머에서 서로 바라보니 십리 남짓이네.
한 번 노를 저어 오고감이 응당 빠르겠거니와
이 사이에 나 또한 떠 집을 지었다네.
江樓高處是君居 隔岸相望十里餘
一棹往來應數數 此間吾亦結茅廬³⁵⁾

일찍이 황려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는데

32) 이색, 「침류정기」, 『목은문고』 권2

33) <어부> 전승에서 주목을 받는 金永暉(?~1348)은 김구용의 從祖父이다.

34) 이색, 「둔촌기」, 『목은문고』 권1

35) 이집, 『둔촌잡영』, <寄敬之>, 『한국문집총간』 3, 335면

남북으로 치달린 지가 십년이 넘었네.
 지금에야 비로소 평소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나
 아직도 스스로 강가에 오두막을 얹지 못하였네.
 曾約黃驪共卜居 奔馳南北十年餘
 如今始遂平生志 猶自江邊未構廬³⁶⁾

사우당(四友堂) 안에 군자가 사는데
 하늘에 가득한 맑은 흥취는 또 남음이 없네.
 큰 강 곳곳에는 빼어난 데 많으니
 남은 생애를 청하여 마주하여 집을 얹고 싶네.
 四友堂中君子居 滿天清興更無餘
 滂江處處多奇絕 欲乞殘生對結廬³⁷⁾

이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의 여강을 어부 체험 공간과 소망 공간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집과 김구용의 여강 생활은 어부 체험 공간으로, 이색의 여강에 대한 그리움은 소망 공간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어부 체험 공간으로서의 여강: 이집, 김구용의 경우

여강이나 여강 주변에서 지내는 자신의 삶을 어부의 세계에 견주고 있는 것을 어부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집(李集, 1327~1387)은 신돈이 축출되고 안 뒤에 천녕현에 거처를 정하고 지냈고, 김구용은 죽주에 유배되었다가 양이되어 외향인 여흥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민사평(閔思平, 1295~1359)의 외손자인 김구용의 경우 여강에서의 어부 지향은 구체적으로 그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외가에서의 삶이면서, 38세인 우왕 1년(1375)부터 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36) 김구용, 『척약재학음집』 상, <遁村寄詩累篇 次韻錄呈>, 성범중, 『척약재 김구용의 문학세계』(울산대출판부, 1997), 작품 번호 238

37) 『역주목은시고』5, 05-12-001-04 <右道美寺樓上 寄敬之>

그 기간에 강·산·설·월·풍·화의 여섯 벗에서 판 육우당(六友堂)을 지어 강호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여강은 어부의 삶이 몸에 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간관 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하여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논하고 배기를 청하니 이인임이 간관을 장류하고 또 김구용·이승인 등이 저를 모해한다 하여 함께 유배할 때 김구용은 죽주(竹州)에 귀양 보냈다. 조금 후에 여흥(驪興)에 옮기니 강호에 방랑하여 날로 시주로서 자락하고 그 거소에 편액하기를 육우당(六友堂)이라 하였다.³⁸⁾

이색이 지은 7언 절구 4수로 된 <여강(驪江)>³⁹⁾은 스스로 어부(漁父) 또는 여강어우(驪江漁友)라는 이름으로 여강에서 살아가는 김구용의 삶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형상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봄과 겨울을 읊은 것을 보면, 봄을 읊은 데에서는 “낙시배 한 척”, “푸른 도롱이와 부들갓”, “가랑비와 비껴 부는 바람” 등이 겨울을 읊은 시에서는 “도롱이와 샷갓”, “눈 속의 낙시질”, “차가운 물과 고기가 물지 않음” 등 어부의 삶과 그 형상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갖 꽃이 활짝 피어 갠 하늘에 빛나는데
낙시배 한 척으로 맑은 물 속에 있네.
푸른 도롱이에 파란 부들갓을 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가랑비와 비껴 부는 바람을 알리요?
群花爛熳炫晴空 一箇釣舟明鏡中
不是綠蓑青蓑客 誰知細雨與斜風

38) 『고려사』 권104, <김구용전>

39) 『역주 목은시고』 4, 04-09-025, <驪江四絶 有懷漁父金敬之>. 『역주 목은시고』에서 이 시를 주목하면서 몇 구절이 『악장가사』에 실린 <어부가>와 거의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주 목은시고』 4, 54쪽 주 122) 참조

텅 빈 푸른 강에서 배 한 척에 도롱이 입고 샷갯을 쓰고
 저녁 눈 속에서 홀로 쓸쓸히 낚시질하네.
 물이 차가워 고기 물지 않은들 어찌 두려워하랴?
 다시 시의 격조를 높은 바람에 퍼지게 하리.
 孤舟簑笠碧江空 獨釣蕭蕭暮雪中
 肯怕水寒魚不食 更教詩格播高風

그런데 이집⁴⁰⁾은 다음 시에서 여강이 소식(蘇軾)이 칭송했던 서호(西湖)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동파 등이 서호에서 누렸던 풍류에 견주어 여강에서 어부로 지내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천 년 뒤의 풍류로 구(歐)·소(蘇)를 말하는데
 서호에서 함께 잔치하며 편안히 즐겼다네.
 어찌 공을 좇아 술잔을 들고 읊으랴?
 여강의 바람과 달이 서호보다 낫다네.
 風流千載說歐蘇 同宴西湖樂以娛
 安得從公一觴詠 驪江風月勝西湖⁴¹⁾

그리고 한수(韓脩, 1333~1384)가 김구용의 내방을 다룬 다음 시에서도 김구용의 삶이 어부의 삶에 휩쓸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서, 김구용이 지내는 여강이 바로 어부 체험의 공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강의 안개와 비 속에 조각배를 띄우고
 마음대로 물길 따라 내려가거나 거슬러 오르네.
 천 점의 봉우리는 다같이 어둑하고 맑은데
 양쪽의 초목들은 제각기 맑고 그윽하네.

40) 이집의 시에 대하여 여운필이 1) 사대부적 의식, 2) 은둔적 지향, 3) 벗에 대한 정서, 4) 궁자적 의식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2)와 3)의 특성이 어부 세계의 지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운필, 『이집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집(1996), 95~103쪽.

41) 이집, 『둔촌잡영』, <寄呈宗工鄭相國>, 『한국문집총간』 3, 337쪽.

고기는 즐거움을 알아 물에 잡혀 서로 쫓고
 새는 기심을 잊고 가까운 곳에 오히려 떠 있네.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시선이 없다면
 어찌 능히 이런 그림 속에서 놀 수 있으랴?
 灑江煙雨泛扁舟 隨意隨流或泝流
 千點峯巒同暗淡 兩邊草木各青幽
 魚因知樂潛相趁 鳥識忘機近尚浮
 不有詩仙居此地 豈能爲此畫中遊⁴²⁾

김구용과 이집이 직접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 주변의 사람들이 관찰한 것을 서술한 것을 종합할 때, 김구용과 이집은 여강 주변에서 지내면서 스스로 어부의 풍류를 실천하고 그 풍류가 중국 사인들의 그것에 견주어 모자랄 바가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여강을 어부 체험의 공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소망 공간으로서의 여강과 어부의 삶에 대한 그리움: 이색의 경우

이색은 50세 이후 여강으로 물러나 어부처럼 살고자 하였다. 그가 누리고자 한 어부의 세계는 실제 실행하지 못했지만 몸은 벼슬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그 세계에 몰입하여 있었던 것이다. 어부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리워한 내면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년의 체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강(鎭江)을 중심으로 한산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리움은 그의 외족이 있는 함창(咸昌)과 영해(寧海)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은 염홍방이 여강 주변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자를 마련한 것이라든가 김구용·이집 등이 여강에서 지내면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42) 한수, 『유향선생시집』, <楊若齋乘舟來訪 請予飲舟中>, 성범중·박경신, 『한수와 그의 한시』(국학자료원, 2004), 작품번호 063

이러한 부러움은 50대 초반에 여강 주변에 전지를 하사 받으면서 소망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부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벼슬살이에서 대은(大隱)⁴³⁾의 태도를 보이려고 했던 점도 깊이 고려할 수 있다.

고향 한산에 대한 그리움은 젊은 시절부터 진강(鎭江) 또는 진포(鎭浦)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진강에서 어부노래로 화답하거나 백구와 더불어 거르롭게 지내겠다는 다짐이 이러한 기억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보니 그 언제인가?
진강(鎭江)의 안개와 비는 고기잡이배에 가득하리.
屈指歸軒今到未 鎭江烟雨滿漁舟⁴⁴⁾

진포(鎭浦)의 구맹(鷗盟)을 어긴 지 오래인데
아득한 비바람에 도롱이 걸치고 샷샷 쓰리.
鎭浦鷗盟久已寒 簑風笠雨渺茫間⁴⁵⁾

진포(鎭浦)에는 안개 낀 물결이 낡은 오두막을 에워쌀 텐데
어린 시절에 어부 노래로 화답하던 일이 생각나네.
늘그막에는 풍진(風塵) 속에 누워 앓으면서도
늘 염주(鹽州)의 붕어를 찾는다네.
鎭浦烟波遶弊廬 漁歌互答想當初
老來病臥風塵底 每向鹽州覓鮒魚⁴⁶⁾

진강(鎭江)·진포(鎭浦)·마읍(馬邑)으로 포괄되는 고향은 어린 시절 어부 노래를 부르던 일을 환기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 갈매기와 벗을 삼아 한적하게 느긋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3) 『역주 목은시고』 5, 05-12-055 <將遣家奴 踏驗新田>

44) 『역주 목은시고』 1, 01-02-003, <新寓崇德寺>

45) 『역주 목은시고』 4, 04-10-038, <蒙賜田有感>

46) 『역주 목은시고』 10, 10-29-136, <有懷孟雲先生>

고향인 한산으로 돌아가는 일이 여의치 않다고 느낄 경우 외가 일족이 사는 함창이나 영해로 마음을 돌리기도 한다.

가랑비와 비껴 부는 바람이 푸른 도롱이에 가득한데
꿈 속에는 늘 흰 갈매기 노는 물결이 있네.

(중략)

올 가을에는 함창(咸昌)으로 갈 뜻을 정하려는데
약물이 나를 지탱해 주니 노쇠함을 어이하리.

細雨斜風滿綠簑 夢中長在白鷗波

(中略)

來秋決意咸昌去 藥餌扶吾奈老何⁴⁷⁾

근래에 단양(丹陽)의 서신이 드물었는데
문득 마른 어물(魚物)을 받으니 후의(厚意)가 적지 않네.

어느날이나 사직하여 동해로 가서
달빛 속에 이끼 낀 물가에 앉아 낚시대를 드리울까?

丹陽音耗近來稀 忽得乾魚意不微

何日乞身東海去 月中垂釣坐苔磯⁴⁸⁾

그런데 여강에 전장을 하사 받으면서 여강으로 귀거래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시편의 곳곳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펼친다. 그런데 돌아가서 느긋하게 지낼 여강은 고향인 한산의 마음(馬邑)과 대비되기도 한다.

마음(馬邑)의 솔바람 소리는 절에 꼭 차고
여강(驪江)의 산에 뜬 달은 낚시터에 비치리.

나의 삶이 본래 강단(剛斷)이 없는 탓이지
가려고 하면 누가 너의 귀거래를 막으랴?

馬邑松聲滿禪院 驪江山月照漁磯

47) 『역주 목은시고』 4, 04-09-011, <思鄕>

48) 『역주 목은시고』 5, 05-12-106 <得寧海金左尹書>

吾生自是無剛斷 欲去何人止汝歸⁴⁹⁾

전장이 마련된 여강으로 돌아가서 푸른 도롱이와 대삿갓 차림으로 비껴 부는 바람을 맞으며 저녁 무렵 가랑비가 내리는 낚시터에서 느긋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면서 어부 지향 공간인 여강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다.

자옥한 가랑비에 초당(草堂)이 어둑한데
복사꽃은 망울이 터지려 하고 버들가지는 노랗네.
도롱이 입고 쪽배 타고 오르고 싶나니
여강(驪江) 한 굽이에 시골집이 있다네.
細雨濛濛暗草堂 桃花欲綻柳絲黃
披簑欲上扁舟去 一曲驪江置野庄⁵⁰⁾

이집이 천녕에서 지내면서 김구용에게 부친 시를 이색에게 보내자 이색은 이를 바탕으로 여강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어부 생활을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이 배어 있고 자신도 이러한 어부 생활을 실천하겠다는 내심을 보이는 것이다.

양쪽 기슭 구름 낀 산에 푸른 기운이 쌓였는데
낚시줄 하나로 바람 속에서 이끼 낀 물가에 앉아 있네.
저녁녘에 석양길에 이슬비가 내릴 때에
청약림과 녹사의로 홀로 돌아온 일이 기억나네.
兩岸雲山矗翠微 一絲風裡坐苔磯
晚來小雨斜陽路 篋笠簑衣記獨歸⁵¹⁾

49) 『역주 목은시고』 5, 05-12-059, <遣興>
50) 『역주 목은시고』 6, 06-16-005, <卽事>
51) 『역주 목은시고』 5, 05-12-002, <又用前韻自詠>

특히 먼저 어부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김구용과 함께 남은 삶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흰 구름은 서로 좇고 수많은 산은 푸르는데
 여강(驪江)의 한 굽이에 비단병풍이 둘러 있으리.
 그대가 마침 친한 이를 그리워하니 나는 사직을 청하여
 가을바람을 헤아려서 함께 배를 짓고 싶네.
 옮겨서 살면 다만 회수(淮水)의 탕자가 될까 두렵지만
 사물에 밝다고 어찌 꼭 초강(楚江)의 개구리밥을 쪼개랴?
 어부들이 다투어 건너는 곳에 이르면
 순박한 마음으로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으리.
 白雲相逐萬山青 一曲驪江遶錦屏
 君政思親吾乞退 秋風準擬共揚舲
 移居只恐爲淮枳 博物何須剖楚萍
 到得漁人爭渡處 好將淳朴送殘齡⁵²⁾

그리하여 여강 주변에서 즐길 어부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색의 시에서 귀거래할 곳으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워하면서 형상화한 어부 공간으로서 여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여강의 물이 불어날 것이고,⁵³⁾ 그러면 쪽배를 타고 곧바로 여강의 초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⁵⁴⁾ 그 여강에는 봄에는 산에 핀 꽃이 물에 잠겨 붉게 물들 것이고,⁵⁵⁾ 그러면 봄물은 포도주와 같을 것으로 보았다.⁵⁶⁾ 여강의 굽이는 산이 그림 속에 있는 듯하고,⁵⁷⁾ 밤에는 밝은 달빛이 밝고,⁵⁸⁾ 바람은 맑고 서늘할 것이며,⁵⁹⁾ 바람

52) 『역주 목은시고』 9, 09-24-067, <有懷金敬之>

53) 『역주 목은시고』 5, 05-14-085, <朝陽>, 10-27-023 <驪江>

54) 『역주 목은시고』 5, 05-13-060, <雪>, 05-14-103, <驪江>

55) 『역주 목은시고』 5, 05-12-102, <自詠二首>

56) 『역주 목은시고』 5, 05-13-057, <歸來篇>

57) 『역주 목은시고』 5, 05-14-103, <驪江>

58) 『역주 목은시고』 9, 09-25-055, <思歸>

속에서 이끼 낀 물가에서 앉아 있거나,⁶⁰⁾ 달빛 속에서 낚시질을 하기도 하고,⁶¹⁾ 저물녘에 지는 해를 받으며 파란 대삿갓과 푸른 도롱이로 돌아 오기도 하고, 아울러 백 척의 높은 다락이 있어서 거기에 기대에 저녁놀을 읊을 수도 있을 것이고,⁶²⁾ 간혹 배 안에서 휘파람을 불면 신선처럼 보일 것이며⁶³⁾ 또 북을 치면서 술잔을 기울이기도⁶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 속에서 길게 휘파람을 불면서 번거롭고 어지러운 것을 벗어나며⁶⁵⁾ 편안하게 생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⁶⁶⁾

이 가운데 가을날의 여강을 더욱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을날에 여강(驪江)을 생각하는데
 어둑한 이슬비 속에 푸른 도롱이를 걸치리.
 물줄기를 따라 배를 저어 가면
 흰 물결에 서늘한 느낌이 생기리.
 가려고 한 것이 또 오래 되었는데
 가지 못하니 장차 어찌하랴?
 강산은 절로 적막한데
 속세의 일은 흔히 어긋난다네.
 백발이 한 움큼도 되지 않으니
 근심하면서 짧은 노래를 짓네.
 秋思在驪江 微雨暗綠簑
 隨流颺舟去 涼意生白波
 欲往亦云久 不去將如何
 江山自寂寞 塵世多蹉跎

59) 『역주 목은시고』 8, 08-22-067, <得子復魚酒 因起驪江之興 作短歌>, 09-25-118, <微雨>

60) 『역주 목은시고』 5, 05-12-002, <又用前韻自詠>

61) 『역주 목은시고』 6, 06-15-060, <自詠二首>

62) 『역주 목은시고』 4, 04-10-091, <望川寧>

63) 『역주 목은시고』 6, 06-15-072, <同年金世珍…>

64) 『역주 목은시고』 7, 07-19-070, <龍頭寺大選以書來>

65) 『역주 목은시고』 9, 09-24-015, <曉吟>

66) 『역주 목은시고』 5, 05-14-039, <雪>

白髮不滿掬 悠然成短歌⁶⁷⁾

그러면서 자신의 귀거래의 의지가 관념적이거나 중국 사인들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어부에 대해 읊은 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 시가 어찌 장지화(張志和)의 시와 비슷하라?
 흥취를 만나면 읊고 다시 생각하지 않네.
 유독 비껴 부는 바람과 가랑비를 좋아하여
 푸른 도롱이와 대삿갓을 본받으려 하네.
 吾詩豈似志和詩 遇興吟來不復思
 獨愛斜風并細雨 綠簔青篛欲相師⁶⁸⁾

여강으로 돌아가 지내고자 하는 이색의 그리움은 김구용·이집이 여강에서 어부처럼 지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에서 촉발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강 가에 하사 받은 전지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배어 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여강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하고 있다.

V. 소결

지금까지 고려후기 특히 14세기 후반에 <어부가>를 수용하면서 어부의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으로 여강을 주목하면서 그 내용을 살폈다. 어부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검토하

67) 『역주 목은시고』 9, 09-25-118, <微雨>

68) 『역주 목은시고』 5, 05-13-077, <次圓齋韻>

고, 체험 공간으로서 여강의 어부의 삶과 소망 공간으로서 여강의 의미까지 아울러 일별하였다.

<어부가>의 수용과 전승에서 중국 사인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미지의 상상 세계를 설정하다가, 14세기 후반 여강을 중심으로 구체적 어부 생활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드러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심에 김구용, 이집, 이색이 놓여 있다.

그러나 김구용·이집이 체험하고 이색이 소망하기는 했지만 당시 시단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색이 끝내 어부의 삶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어서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여러 해 뒤에 이색의 <여강연집>과 같은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면서 왕조의 중심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짐에 따라, 여강은 오히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되어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 예종 원년 영릉(英陵)을 천녕현 지역에 안치하면서 천녕현은 없어지고 그 남은 지역이 여주로 부속되어서, 여강 지역은 어부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송모의 지역으로 인식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16세기에 이르러 여강을 따라 한양과 고향을 오가게 된 이현보 등에 의해 여강을 대체할 수 있는 분강(汾江)이라는 새로운 어부 공간이 마련되면서 <어부가>의 수용과 전승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부 세계를 지향하는 구체적 공간으로 여강을 주목하면서 고려 후기 이후 <어부가>가 연행된 현장, 수용자, 새로운 집구와 산정 등에서 구체적 어부 공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어부가>, 어부 지향 공간, 여강, 이색, 이집, 김구용, 체험, 소망

참고문헌

『高麗史』

金九容, 『楊若齋學吟集』, 『한국문집총간』 6

李穡, 『牧隱集』, 『한국문집총간』 3~5

李集, 『遁村雜詠』, 『한국문집총간』 3

韓脩, 『柳巷先生詩集』, 『한국문집총간』 5

김병국,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김홍규, 「강호시가와 서구 목가시의 유형론적 비교」, 『민족문화연구』 43호(2004), 1~44쪽.

박완식, 「어부사 연구」, 우석대 박사논문, 1996.

성범중, 『척약재 김구용의 문학세계』, 울산대출판부, 1997.

성범중·박경신, 『한수와 그의 한시』, 국학자료원, 2004.

송정숙, 「어부가계 시가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0.

여운필, 「이집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집(1996), 85~120쪽.

여운필·성범중·최재남, 『역주 목은시고』 1~10, 월인, 2000~2005.

윤영옥, 「어부사연구」, 『민족문화논총』 2·3집(1986), 35~72쪽.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성대논문집』 9집(1964), 5~28쪽.

이재수, 『윤고산연구』, 학우사, 1958.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조운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최동원, 『고시조논고』, 삼영사, 1990, 178~229쪽.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대출판부, 1977.

<Abstract>

A Study on Comprehending of Yeo-river(驪江) as an Area of a Pseudo Fisherman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omprehend the Yeo-river(驪江) as an area of a pseudo fisherman in the late Korea dynasty.

In Eobuga(漁父歌, songs of pseudo fisherman), We have understood the area of a fisherman as imaginary and out of concrete. But in the late Korea dynasty, especially in the 14th century, the Yeo-river was newly recognized as a concrete living foundation of a pseudo fisherman.

The Yeo-river is located in South Han-river at present, was far off Kaegyong(開京, the capital of Korea dynasty), was an area of exile, had a very beautiful scenery, and had fertile farms.

The foundational factors of a pseudo fisherman is as followings. First, the blue bamboo hat and green reedy coat, second, a fishing-rod and a place for fishing, third, leaned wind and a drizzle, forth, a small boat, and so on.

The Yeo-river as an area of a pseudo fisherman is classified two groups. One is Lee-jip(李集, 1327~1387) and Kim-guyong(金九容, 1338~1384) who experienced the lives of fisherman in the Yeo-river, the other is Lee-saek(李穡, 1328~1396) who had a hope of gain and wishing to see a very beautiful scenery in the Yeo-river.

We are able to imagine a picture as follows.

It drizzle in the riverside of Yeo-river. A pseudo fisherman is fishing with a hook at a mossy stone putting wear the blue bamboo hat and green reedy coat. The lunar light is mysterious in a small boat. In cross site a cool wind is leaned. And a man is very comfortable out of confused.

Key Words : songs of pseudo fisherman, Yeo-river(驪江), pseudo fisherman, Lee-saek(李穡), Lee-jip(李集), Kim-guyong(金九容), experience, hope of gain